

‘바르샤 듀오’ 이·백점 활약... “이번엔 아르헨이다”

〈이승우 1골1도움·백승호 1골〉



U-20 월드컵 A조 1차전

신태용호, 기니에 3-0 완승

내일 오후 8시 전주서 2차전

기니를 침몰시키며 뜨겁게 달궜던 ‘바르샤 듀오’ 이승우(바르셀로나 후베닐A)와 백승호(바르셀로나B)의 발끝이 이번에는 ‘남미의 강호’ 아르헨티나를 겨냥해 또다시 불을 뿜을 태세다.

신태용 감독이 이끄는 한국 U-20 대표팀은 23일 오후 8시 ‘승리의 땅’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아르헨티나와 2017 국제축구연맹(FIFA) U-20 월드컵 조별리그 A조 2차전을 치른다.

태극전사들은 지난 20일 열린 기니와 1차전에서 3-0 대승을 따내며 잉글랜드(승점 3·골득실+3)와 함께 A조 공동 1위를 올라섰다.

특히 ‘바르샤 듀오’ 이승우(1골1도움)와 백승호(1골)는 한국이 기니를 상대로 터트린 3골에 모두 관여하는 맹활약으로 상승세를 주도했다.

이승우는 결승골과 함께 임민혁(서울)의 추가골을 도왔고, 백승호는 기니의 막판 추격에 찬물을 끼얹는 썩기골을 터뜨렸다. 아르헨티나와 조별리그 2차전 역시 이들의 활약에 팬들의 기대감이 크다. 아르헨티나를 꺾으면 16강 진출을 확정할 수 있다.

이미 바르샤 듀오는 두 차례 공식 평가전에서도 골맛을 보며 기대감을 높였다. 이승우는 강호 우루과이 평가전에서 헤딩



지난 20일 오후 전북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2017 국제축구연맹(FIFA) 20세 이하(U-20) 월드컵 조별리그 A조 대한민국과 기니의 경기. 3-0 승리를 거둔 한국 선수들이 응원단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으로 득점했고, 백승호는 세네갈 평가전에서 대표골 슈팅을 선보였다. 둘은 기니전에서도 이름값을 톡톡히 해냈다.

이승우는 기니의 초반 공세로 대표팀이 다소 위축된 전반 36분 과감한 드리블 능력을 앞세워 상대 수비수를 무력화하며 결승골을 쏘았다. 이승우의 장점은 득점뿐만 아니라 결정적 패스에도 능하다는 것이다. 그는 후반 31분 페널티지역으로 쇄도하는 임민혁(서울)을 향해 상대 수비수

가랑이를 통과하는 패스를 찢러줘 추가골의 발판을 마련했다.

이승우와 반대쪽인 오른쪽 날개로 뛰는 백승호의 활약도 팬들을 기대하게 한다. 백승호는 기니와 1차전에서 후반 36분 정태욱(아주대)의 헤딩 패스를 받아 페널티지역 정면에서 재치있는 로빙 슈팅으로 득점했다.

세네갈 평가전에서 ‘대표골 슈팅’을 선보였던 백승호는 이번에는 골키퍼의 키만 살짝 넘기는 재치있는 슈팅을 선보이며 팬

들의 감탄사를 쏟아냈다.

‘바르샤 듀오’를 포함한 태극전사들이 2차전에서 상대인 아르헨티나는 역대 6차례나 정상에 오른 최다 우승국으로 긴장의 끈을 놓을 수는 없다.

아르헨티나는 우승후보답게 잉글랜드와 1차전에서 출중한 개인기와 뛰어난 조직력을 선보였지만, 결정력이 부족했다. 스피드와 피지컬을 앞세운 잉글랜드 특유의 선 굵은 축구에 속수무책으로 당했다. 한국 역시 참고해야 할 ‘활승전략’이다.

게다가 아르헨티나는 ‘핵심 골잡이’ 라우타로 마르티네스가 경기 도중 상대 선수를 팔꿈치로 친 게 비디오 판독에 잡혀 레드카드를 받으면서 한국전에 나설 수 없다. 마르티네스는 남미 예선에서 5골을 넣어 공동 득점왕을 차지했던 아르헨티나의 핵심 공격자이던 만큼 한국에는 호재다.

1차전에서 3골이나 내주고 완패한 아르헨티나도 한국전을 반등의 기회로 삼을 작정인 만큼 태극전사들도 초심으로 나서는 게 중요하다. /연합뉴스

‘심판의 눈’ 속여도 ‘카메라 눈’ 못속여 U-20 비디오 판독 우려

비디오 판독이 2017 국제축구연맹(FIFA) U-20 월드컵 첫날부터 우려를 발취하고 있다.

‘심판의 눈’은 속일 수 있지만 ‘카메라의 눈’은 피하기 어렵게 되면서 비디오 판독이 이번 대회 승부의 최대 변수로 떠오르게 됐다.

통산 7회 우승에 도전하는 ‘남미의 강호’ 아르헨티나는 ‘비디오 판독 퇴장 1호’의 불명예를 경험했다.

아르헨티나는 20일 잉글랜드와 대회 조별리그 A조 1차전에서 후반 33분 라우타로 마르티네스가 주심으로부터 레드카드를 받았다.

마르티네스는 앞서 상대 수비수 안면을 팔꿈치로 가격했다. 주심은 상황을 인지하지 못했고, 마르티네스는 슈팅까지 시도한 뒤 코너킥을 얻어냈다.

하지만 그때 ‘매의 눈’이 작동했다. 주심은 곧바로 코너킥 상황을 멈추고 나서 비디오 판독 심판과 무선교신을 나눈 뒤 마르티네스에게 퇴장명령을 내렸다. 0-2로 끌려가던 아르헨티나는 수적열세까지 겹치면서 후반 막판 쉐기 골까지 얻어맞고 0-3 완패의 수모를 당했다.

한국 역시 비디오 판독에 아쉬움을 곁들여야 했다.

기니와의 조별리그 A조 1차전에서 한국은 1-0으로 앞서던 전반 45분 이승우가 기니 골지역 엔드라인 부근에서 내준 패스를 쇄도하던 조영욱이 볼의 방향을 살짝 바꿔 득점에 성공했다. 선수들이 골 세리머니를 펼치는 사이 주심은 비디오 판독 심판과 교신을 했다.

비디오 판독 심판은 이승우가 크로스할 때 볼이 엔드라인을 벗어났다고 판단을 했고, 주심은 이를 받아들여 득점을 취소했다. /연합뉴스

호랑이 원투펀치 내고도 시즌 첫 스윙패



깜짝 3연승으로 웃었던 ‘호랑이 군단’이 충격의 3연패를 당했다.

KIA 타이거즈가 21일 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두산 베어스와의 경기에서 3-7로 지면서 싸늘이 3연패를 기록했다. 주중 LG를 상대로 3연승을 기록했던 KIA는 헥터-양현종 ‘원투펀치’를 내세우고도 주말 3연전에서 1승도 챙기지 못했다. 3연패에도 1위 자리는 지켰다.

첫 경기부터 단추를 잘물 끼었다.

19일 헥터가 선발로 나서 7이닝 2실점의 호투를 하며 분위기를 끌고 왔다. 안치홍의 투런포 등 KIA 타자들도 생애 첫 선발

두산과 1차전 9회 5실점 패 2차전 5회도 못버틴 양현종 3차전 마운드·수비 싸움 제

등판에 나선 두산의 ‘루키’ 박지국을 상대로 4회까지 5점을 만들며 4연승을 잇는 것 같았다.

문제는 9회 불펜이었다. 6-2, 4점 차에서 출격해 임창용이 최주환에게 동점 스리런에 이어 에반스에게 백투백 홈런을 맞으면서 역전패가 기록됐다.

20일 패배도 충격적이었다. 믿었던 양현종이 5회도 버티지 못하고 무너졌다. 이날 양현종은 4회 2사까지 홈런 포함 12개의 피안타로 6실점을 했다. 설상가상 두산 유력한 공력에 실패한 KIA는 9회까지 한 점도 만들어내지 못하면서 완봉승 제물이

됐다.

21일은 김진우(KIA)-니퍼트(두산)의 싸움에서 우선 밀렸다. 1회부터 연속 안타와 볼넷으로 무사 위기를 자초했던 김진우는 어렵게 위기를 넘긴 뒤 1-0으로 앞선 4회 에반스에게 동점포를 내줬다. 5회는 연속 2루타 포함 3안타로 시작한 뒤 볼넷과 폭투를 각각 두 개씩 기록하는 등 스스로 무너졌다.

KIA 타선의 집중력이 좋지 못했다. 버나디나의 1회 선두타자 홈런이 나왔지만 이후 침묵이 이어졌고, 6회부터 9회까지 13명의 주자가 걸어나갔지만 홈에는 두 명밖에 들어오지 못했다. 수비 싸움에서도 졌다. 이병호가 두 개의 실책을 기록했고 실책으로 남지 않았지만 최원준의 포구 실수, 안치홍이 아쉬운 송구가 나왔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호수비 김호령 “두 개 왔으니 두 개 잡았죠” 박스 쓰고 감독실 방문 선수에 “너, 헥터지”

덕아웃 T 특특

▲두 개가 왔으니 두 개를 잡았죠 = 수비 잘하기로 소문난 김호령은 지난 20일 두산과의 홈경기에서 중견수로 선발 출장해 실력 발휘를 했다. 특히 절정의 타격감을 자랑하는 에반스의 안타성 타구 두 개를 낚아채 중견수 플라이로 둔갑시켰다. 김호령은 “(에반스의 타구) 두 개가 왔으니 두 개를 잡았다. 하나는 보통으로 잡을 수 있는 타구였는데 ‘잡았다’고 언급했다. ▲힘들어요 = ‘스마일 가이’ 팻던에게

란 박스에 직접 눈과 코를 뚫은 헥터는 박스를 뒤집어쓴 채 감독실까지 진출했다. 박스 차림으로 감독실 문을 두드린 헥터, 깜짝 등장이었지만 김 감독은 바로 헥터임을 눈치챈다는 후문이다.

▲투수밖에 안 보였어요 = 두산 김민혁이 고창에서 데뷔전을 치렀다. 광주 동성고 출신의 김민혁은 지난 20일 역시 동성고 출신의 선배 최주환을 대신해 9회 타석에 섰다. 결과는 헛스윙 삼진이었지만 프로 3년 만에 경험한 1군 첫 타석이었다. 김민혁은 “아무 생각도 안 들고 투수밖에 안 보였더라”며 “결과가 어둡지만 생각보다 빨리 기회를 얻어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너, 헥터지 = 지난 19일 두산전 선발로 나선 헥터는 7이닝 2실점의 호투에도 시즌 7승에 실패했다. 6-2로 앞선 9회, 임창용이 0.1이닝 5실점으로 무너지면서 눈앞에서 승리를 날렸다. 총격적인 역전패로 가라앉은 분위기를 띄우기 위해 헥터가 20일 ‘뽕개고’에 나섰다. 라커룸에 있던 커다

란 박스에 직접 눈과 코를 뚫은 헥터는 박스를 뒤집어쓴 채 감독실까지 진출했다. 박스 차림으로 감독실 문을 두드린 헥터, 깜짝 등장이었지만 김 감독은 바로 헥터임을 눈치챈다는 후문이다.

▲투수밖에 안 보였어요 = 두산 김민혁이 고창에서 데뷔전을 치렀다. 광주 동성고 출신의 김민혁은 지난 20일 역시 동성고 출신의 선배 최주환을 대신해 9회 타석에 섰다. 결과는 헛스윙 삼진이었지만 프로 3년 만에 경험한 1군 첫 타석이었다. 김민혁은 “아무 생각도 안 들고 투수밖에 안 보였더라”며 “결과가 어둡지만 생각보다 빨리 기회를 얻어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이날 두산 라인업에는 김민혁, 최주환과 함께 양의지(진중고), 허경민(광주 일고) 등 광주출신 야수 4명이 이름을 올렸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챔스필드 등 4개 구장 무료 입장, 왜?

티켓 예매 대행사 서버 다운...발권 안돼

KIA 챔피언스필드를 비롯한 전국 4개 구장에 ‘예매 대란’이 발생했다.

KIA와 두산의 경기가 열린 21일 야구장은 찾은 팬들의 발이 출몰구에서 막혔다. 이날 티켓 예매 대행사인 티켓링크 서버가 다운되면서 정상적인 티켓 발권 업무가 이뤄지지 못한 것이다.

많은 야구팬들은 인터넷 사전 예매를 통해서 입장권을 구입하고 있다. 이날 경기의 경우에도 이미 인터넷 예매를 통해 전체 2만500장 중 1만7500여 장이 팔려나간 상태였다. 하지만 예매 사이

터 서버에 문제가 생기면서 예매된 입장권을 발급할 수 없는 상황이 됐고, 입장 문제를 놓고 구단이 고민이 빠진 것이다.

그리고 KIA는 ‘예매 대란’ 속에서도 시즌 4번째 매진을 기록했다. 관중석이 무료 개방됐지만 이번 사태에 책임이 있는 티켓링크가 보상하기로 하면서 입장 관중은 ‘유료 관중’으로 집계됐다. KIA는 입장권 사전 판매 분량과 앞선 경기들의 관중 추세를 고려해 이날 홈경기 관중을 만원 관중으로 집계, 발표했다. /김여울기자 wool@

역시 티켓링크를 통해 입장권을 발매하고 있는 kt, 한화, NC도 이날 경기장을 무료로 개방했다. 자리를 놓고 몇 구데서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했지만 예상보다 큰 혼잡은 빚어지지 않았다.

그리고 KIA는 ‘예매 대란’ 속에서도 시즌 4번째 매진을 기록했다. 관중석이 무료 개방됐지만 이번 사태에 책임이 있는 티켓링크가 보상하기로 하면서 입장 관중은 ‘유료 관중’으로 집계됐다.

KIA는 입장권 사전 판매 분량과 앞선 경기들의 관중 추세를 고려해 이날 홈경기 관중을 만원 관중으로 집계, 발표했다. /김여울기자 wool@

김윤동·이명기 ‘4월 감독상’

KIA 타이거즈 투수 김윤동과 외야수 이명기가 4월 ‘이달의 감독상’을 받았다. 김윤동과 이명기는 지난 20일 광주 두산전에 앞서 구단 후원업체인 Kysco(키스코)가 시상하는 ‘이달의 감독상’ 시상식을 가졌다.

김윤동은 4월 한 달간 10경기에 등판해 14.2이닝 동안 3.07의 평균자책점으로 11개의 탈삼진을 잡아내며 2홈런, 2세이브를 거뒀다. 김윤동은 중간계투는 물론 마무리 보직까지 전천후로 활약하며 팀 마운트에 승통을 띄웠다.

이명기는 4월 17경기에 출전 67타수 25안타(타율 0.373) 9타점 10득점 타율 0.373을 기록했다. 특히 트레이드로 KIA 유니폼을 입은 뒤 테이블세터로 활약하며 팀 타선에 활기를 불어넣었다.

이날 시상식은 Kysco 김원범 대표가 했고, 상금은 50만원이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타이거즈 러브투게더, 유망주에 장학금

KIA 타이거즈와 기아자동차가 사회공헌 프로그램 ‘타이거즈 러브투게더’를 통해 19명의 야구 유망주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

KIA와 기아자동차는 지난 20일 광주-기아 챔피언스 필드에서 열린 두산전에서 2017시즌 제1회 타이거즈 러브투게더 데이를 개최했다.

‘타이거즈 러브투게더’는 경기 기록에 따라 KIA 선수와 구단 임직원, 기아차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설정한 기부금을 매월 적립해 사회 공헌 활동을 하는 프로그램으로 국내 최초 모기업-프로구단 연계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KIA와 기아자동차는 지난해 ‘타이거즈 러브투게더’를 통해 적립한 기금(3억 6900만원) 중 일부인 6000만원을 이날 19명의 야구 유망주들에게 장학금으로 전달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